

# “컴퓨터 책만큼은 우리가 최고”

## 컴퓨터 전문출판사 '정보문화사' 이상만 사장

정보문화사 이상만 사장(42)의 시간 계산법은 늘 현재가 중심이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친형이 경영하는 크라운출판사에 입사해 영업, 기획, 관리까지 도맡아 했다. 《컴퓨터 매거진》이라는 잡지도 발행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부사장까지 역임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년 5개월전인 90년 12월 1일에 독립하여 컴퓨터 서적 전문출판사인 '정보 문화사'를 창립했다. 그리고 1년전에 대학로 낙산의 정기가 흘러내려 모인다는 현재의 위치에 5층짜리 사옥을 완공했다.

### 독자 요구에 부응하는 기획

“나만큼 컴퓨터책 잘만드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책, 필요한 책을 만들기 위해 나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내 대형서점들이 집계한 컴퓨터 부문 베스트셀러에 《컴퓨터 길라잡이》와 《안녕하세요 인터넷 WWW》이 동시에 오를 만큼 인기를 끄는 비결에 대한 이사장의 답변은 간단하다.

컴퓨터책이 실용서인 만큼 독자들이 어떤 책을 고르고 외면하느냐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이다. 이사장은 정보문화사에서 펴내는 책들이 지니는 '작은 차이'는 외국에 뒤지지 않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편집에 있다고 자랑한다. 책을 만드는 방법이나 내용, 디자인 등 전반

적인 것에서 아주 조금씩 앞서간다는 말이다. 이같은 차이는 이사장의 탁월한 경영에 힘입고 있다.

정보문화사 편집부 전원은 컴퓨터 관련학과 출신이다. 컴퓨터를 모르고 어떻게 컴퓨터책을 만들 수 있는냐는 것이 이사장의 지론이다. 입사 후에도 공부와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12명의 직원들을 팀별로 나누어 각자 나름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한다. 자신이 만든 책에 대한 책임감도 그만큼 높아진다.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외 나들이를 시킨다.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책이 폭발적으로 잘 나갔을 때는 직원 전원에게 특별 보너스도 지급했다. 이 때문인지 정보문화사 직원들의 이직율은 유난히 낮다.

여느 출판사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 컬러스캐너도 눈길을 끈다. 인쇄 외의 모든 작업공정이 출판사 내부에서 처리되므로 훨씬 신중하고 효과적이며 실험적이기도 한 디자인과 편집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획력. 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세심히 관찰하고 컴퓨터 산업의 흐름에 대한 예견을 바탕으로 한 알짜배기 기획이 많았던 것이 정보문화사의 성공 요인이다.

이를 위해 이사장은 한달에 20여 종의 국내외의 잡지를 읽는다. 외국의 신간동향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추세에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만큼 컴퓨터 책을 잘 만드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책, 필요한 책을 만들기 위해 나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죠. 완벽하게 기획한 아이템과 계획 아래 필자를 선정하고 기획의도에 맞을 때까지 퇴고를 거듭합니다.”

이상만 사장.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남다르다고 한다.

“가지고 오는 원고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내부에서 기획한 아이템과 계획에 필자를 선정합니다.”

국내에 내로라하는 전문가 100여명을 필자로 확보해두고 있는 점도 특색. 기획의도에 가장 적합한 필자를 선정하고 그 의도가 관철될 때까지 퇴고를 한다. 책 한번 내려면 예닐곱번 원고를 고쳐쓰는 것이 예사다.

### 종합출판으로 전환할 예정

“앞으로 5년 후면 컴퓨터가 음성을 인식하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과 같은 컴퓨터책은 필요가 없게 되지요. 마치 가전제품 설명서 정도의 얇은 매뉴얼이면 다 해결이 될 테니까요.”

컴퓨터책의 미래를 이렇게 점치는 이사장은 이에 대비해 내년부터 외국의 한 출판사와 합자형태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주식회사체제로 전환하여 종합출판을 시도해볼 생각이다. 이는 새로운 저작권법 발효를 앞둔 대책이기도 하다.

전산전문대학 설립이 앞으로의 꿈인 이사장은 그동안 일에 매달리느라 달리 취미도 없다. 요사이 유일한 낙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일. 주로 청국장이나 산나물같은 토속적인 음식들이 이사장의 구미를 끄는데, 잘하는 데가 있다면 강원도까지라도 즐겁게 간다. 이사장은 자신이 먹는 일을 즐기는데도 살이 안찌는 것은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다. 그의 그런 철저함이 독자들에게는 반갑기만하다. — 박남정 기자

### 해석학과 비판적 사회 과학

이구슬 지음/208면/7,000원/철학박사학위논문 10

가다머의 해석학과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 과학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둘 사이의 해석학 논쟁을 다루고 있는 책. “심층 해석학” 또는 “비판적 해석학”이라는 새로운 해석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 칸트 철학: 자연과 자유의 통일

김용정 지음/368면/12,000원

“자연과 자유의 통일”이라는 주제로 압축할 수 있는 칸트 철학의 여정(旅程)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칸트 철학 개론서. 칸트 철학의 모태가 되는 뉴턴과 라이프니츠 사상을 기점으로 하여 폭넓게 칸트의 사상을 다루고 있다.

### 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L.K. 뒤프레 지음/권수경 옮김/208면/7,000원

모더니티의 문제를 신, 자연, 인간 사이의 와해에 근거한 초월성의 상실이라고 진단하는 지은이가 종교 언어, 상징, 신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실재하는 초월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정념에 관하여: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2

D. 흄 지음/이준호 옮김/224면/9,000원/양장

인식 작용 이외의 도덕적 감정과 예술적 감정 및 그 밖의 모든 심리적 사실을 실험적 방법을 통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흄의 원전.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 또한 사회적이며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